



유통업계
장마 마케팅
농산물 확보도 OK
니



Life

hy
유통플랫폼
입지 확대
L2



“6월 모평, 이과생 고득점자 많아 무전공선발·정시 모두 유리할 것”

종로학원, 3684명 표본 조사
수학 1등급 중 98.6% ‘이과생’
선택과목 간 점수차 최대 7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남산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전 공부를 하고 있다. /뉴스

지난달 치러진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에서 선택과목 유불리가 재현됐다. ‘미적분’ ‘기하’ 등 이과생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더 높게 나오면서 여전히 이과생이 고득점을 받기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종로학원이 6월 모평에 응시해 개별 성적을 통지받은 3684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선택과목 간 점수 차이가 일부 과목에서 최대 7점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이 ▲미적분 152점 ▲기하 151점 ▲확률과 통계 145점이다. 선택과목에서 같은 만점을 받더라도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보다 7점 높은 표준점수를 받게 된 셈이다. 미적분은 주로 이과생이 선택하고, 확률과 통계는 문과생이 선호한다.

국어에서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이과생이 주로 선택하는 언어와 매체는 148점이고, 화법과 작문은 145점으로 3점가량 차이 났다.

종로학원은 이번 모평에서 이과 학생이 문과 학생보다 고득점자 수가 훨씬 많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과생이 주로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수학 1등급 학생 중 이과 학생이 98.6%로 추정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사는 “여전히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유리한 구도”라며

“특히 계열 구분 없이 선발하는 무전공선발 유형 I 과 정시 선발에서 이과생이 매우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종로학원이 6월 모평을 토대로 예측한 의대 지원 가능 최저선은 표준점수 기준 414점, 수도권 소재 최저선은 422점이다. 서울대 의예과 예측 점수는 429점, 연세대 의예과와 고려대 의대는 각각 428점, 426점이다.

서울권 대학 진입 가능점수는 인문계열 340점, 자연계열 337점으로 예측됐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구직 단념자 늘어... 청년수당 손질해야

‘심 인구’ 증가에 청년수당 여전히 유효
실질적 육구 기반 호혜적 정책 필요

서울시가 미취업 젊은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청년수당’ 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구직 단념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행된 ‘서울시 청년수당 성과와 개선 전략’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청년 실업률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2020년 늘었다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나, 이는 노동시장 일자리 감소와 청년의 일자리 공급, 노동시장 수요의 미스매치 등으로 인해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대 실업률

은 2016년 9.8%에서 2022년 6.4%로, 30대 실업률은 3.1%에서 2.7%로 각각 3.4%포인트, 0.4%포인트 줄었다. 동기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0대는 24만5000명에서 36만2000명으로, 30대는 17만6000명에서 26만명으로 각각 47.76%, 47.73% 폭증했다.

보고서는 “중앙정부의 구직 활동, 취업 중심의 정책으로는 청년이 직면하는 이행기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부연했다.

연구진은 미취업 청년을 위한 유사 정책이 많아짐에 따라 청년수당 사업 방식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일부 소수 청년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공급자 관점에서 탈피해 청년의 실질적 육구를 기반으로 한 호혜적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파주시 교통혁명... ‘30분 교통망’ 만든다

2030년까지 교통 선진도시로 도약
서울, 파주시내 전 지역 30분 이내로

2030년이면 파주시의 교통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파주에서 서울까지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되고, 파주시 전 지역이 30분 이내 통행권에 포함되며, 교통사고도 3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환승센터 건설 등으로 대중교통과 교통 플랫폼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파주시는 민선8기 3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일 오후 금촌다목적체육관에서 ‘2030 파주교통혁명이 시작됩니다’라는 표어로 「파주시 교통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더 가까운 파주, 100만 파주 도약”을 비전으로 하여 ▲더 빨라집니다(서울까지 30분) ▲더 가까워집니다(파주시내 30분) ▲더 안전해집니다(교통사고 30% 절감) ▲더 편리해집니다(교통플랫폼 혁신)라는 세부 목표를 제시하며, 2030년까지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교통 선진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오늘 선포한 파주시 교통비전은 파주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100만 도시 파주의 기틀을 다지고 경기 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북한산 앞 미아동 일대, 2500세대 들어선다

고도지구 면적 줄이고 최고높이 완화
구릉지 특성 활용한 주거유형 도입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 최고 25층, 25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미아동 791-2882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대상지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고저차(57m)가 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작년 6월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았던 곳의 합리적 관리를 골자로 하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시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면적을 줄이고 최고 높이를 완화하면서 노후 주거지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됐다. 기존에는 건축물 높이가 최고 28m(9층)까지만 가능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평균 45m(15층)로 풀렸다. 용적률은 240% 내외다.

북한산의 경관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대상지 내 산으로 이어지는 2개의 통경 구간을 확보하고, 평균 45m 범위 내에서 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10~15층), 역세권 인접부 최고 25층으로 계획해 사업의 실현성을 높였다고 시는 강조했다. 또 고저차가 57m에 이르는 지형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 테라스하우스 등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시는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실버케어센터 등 문화·복지시설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hkt@

안심소득 출범 2주년... 성과·방향성 논의

서울시, 소득보장제도 주제 토론회

서울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한국사회보장학회와 이달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미

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모형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일명 ‘하후상박형’ 복지 제도로 설계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한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6 | 해질 / 19:57

7월 4일 (木)
음력 : 5월 29일

수도권 날씨
22~28°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21/27, 동두천 21/27, 가평 21/28, 파주 21/27, 서울 22/28, 양평 22/29, 인천 22/25, 수원 23/27, 용인 23/27, 평택 22/30, 백령도 20/2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홍민 치고도 교체... ‘수비 실수’ 김도영 과감하게 뺀 KIA /사진 뉴스
▲황성빈·장현식·송성문·박지환, 올스타전 누빈다...출전 선수 확정

▲김하성, 10경기 연속 안타 불발...텍사스 전 3타수 무안타
▲메시 빠진 아르헨티나 파리올림픽 18명 발표



▲유로 8강 대진 확정...스페인-독일, 포르투갈-프랑스 빅매치
▲서울 3연승 이끈 한승규 K리그1 20라운드 MVP /사진 뉴스